

피렐라 활약에 웃는 삼성, ‘NPB 출신’ 강세

(일본프로야구)

피렐라, 33G 타율 0.359 11홈런 31타점 맹타
같은 NPB 출신의 KT 알몬테도 무난한 성적표
키움 프레이타스·한화 힐리는 퇴출 걱정해야

2021시즌 KBO리그에서 뛰고 있는 새 외국인타자는 호세 피렐라(32·삼성 라이온즈)와 조일로 알몬테(32·KT 위즈), 데이비드 프레이타스(32·키움 히어로즈), 라이온 힐리(29·한화 이글스)의 4명이다. 2020시즌 최우수선수(MVP) 뎀 로하스 주니어(한신 타이거즈)와 함께했던 KT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팀은 모두 지난해 외국인타자 농사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기에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새 얼굴을 데려왔다.

그러나 초반부터 이들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상·중·하의 등급을 명확하게 매길 수 있을 정도다. 타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보니 이들의 활약 여부가 팀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렐라의 활약은 톱클래스급이다. 16일까지 33경기에서 타율 0.359(145타수 52안타)에 11홈런, 31타점, 출루율 0.409 의 맹타다. “삼진율이 낮고 콘택트 능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영입했는데, 펜스 거리가 짧은 홈구장(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파워까지 뽐내고 있다. 적극적 플레이로 팀 승리에 기여하려는 노력까지 더해 팬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

알몬테의 활약은 피렐라에 미치지 못한다. 35경기에서 타율 0.276(134타수 37안타), 4홈런, 20타점, 출루율 0.338 다. 다소 느린 동작과 적극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눈에 띄게 떨어지는 성적은 아니기에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로하스의 괴물 같은 활약을 지켜본 팬들의 눈높이가 올라간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프레이타스와 힐리는 퇴출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프레이타스는 26경기에서 타율 0.253, 1홈런, 12타점, 출루율 0.279, 힐리는 30경기에서 타율 0.248, 1홈런, 14타점, 출루율 0.288로 부진하다. 프레이타스는 2군에서 조정 중이지만, 국내타자들의 활약 덕에 부진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힐리는 노시환, 장운호 등 국내타자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살아남 기미를 보이지 않아 걱정이 천근만근이다.

이들 중 피렐라와 알몬테는 일본프로야구(NPB) 출신이다. 일반적으로 NPB 출신 선수들을 데려올 때는



올 시즌 KBO리그의 새 외국인타자는 삼성 피렐라, KT 알몬테, 키움 프레이타스, 한화 힐리(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등 4명이다. 이들 중 피렐라의 돋보이는 활약 덕분에 일본프로야구(NPB) 출신 외국인선수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아시아야구 적응이 빠르다는 장점을 고려하는데, 이는 투수들의 투구 스타일과 문화의 유사성과도 궤를 같이 한다. 강속구 투수들이 득세하는 메이저리그와 달리 포크볼, 종슬라이더, 너클커브 등 변화구 적응이 필수인 NPB를 경험하면, 스타일이 유사한 KBO리그에도 적응하기 수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2016~2017년

닉 에반스(두산 베어스)와 2019년 카를로스 페게로(LG 트윈스)도 NPB 출신 타자의 성공사례다. 특히 삼성은 지난해부터 함께하고 있는 투수 데이비드 뷰캐넌과 올해 피렐라까지 NPB 출신 선수들을 영입하며 ‘안정’을 택한 결과가 홀륭했기에 향후에도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최주환

‘SSG 천군만마’ 최주환-르위키 복귀 임박

오늘부터 퓨처스 연습경기 출전
몸상태 보고 1군 복귀시점 조율

SSG 랜더스는 시즌 초반 부상자 속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선의 중심을 잡아주던 최주환(33·웬스트링), 개막전 선발로 나선던 아티 르위키(29·요구리), 마무리투수 김상수(33·치아)가 부상으로 전열을 벗어나있다.

다행히 SSG는 선전을 거듭하고 있다. 5할 이상의 승률로 저력을 뽐내고 있다. 핵심선

수들이 부상을 털고 돌아왔을 때 본격적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르위키와 최주환은 18일부터 실전에 투입돼 1군 복귀시점을 조율한다.

르위키와 최주환은 18일 고양 히어로즈와 퓨처스(2군)리그 연습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르위키는 선발등판, 최주환은 지명타자로 선발출전이 유력하다. 이들 2명 모두 부상 이후 첫 실전이다. 특히 르위키의 복귀는 또 다른 외국인투수 월터 폰트가 돌아온 상황에서 원투펀치의 정상 가동을 의미하기에 고무적이다.

김원형 SSG 감독은 “최주환은 퓨처스 게임을 지켜봐야겠지만, 늦어도 6월 초에는 1군에서 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감독이 언급한 6월 초는 최주환이 공격과 수비 모두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는 시기다.

웨이트트레이닝 도중 치아를 다쳤던 김상수의 회복속도 역시 빠르다. 김 감독은 “(김상수) 처음에 보고받았던 상태보다 많이 좋아졌다. 음식 섭취를 못 할까봐 걱정했는데, 얼굴을 보니 큰 문제가 없더라. 이달 말에 볼펜파칭을 시작하면 6월 10일 경에는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경기 감각은 충분히 문제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안 터지는 한화, 올 시즌 첫 위기 벗어날까

최근 6경기서 고작 1승 기세 꺾여
타격 약점 노출에 뎀스 격차 실감

패기로 뭉친 독수리들의 기세가 5월 들어 꺾였다. 장기 레이스에서 버티려면 반등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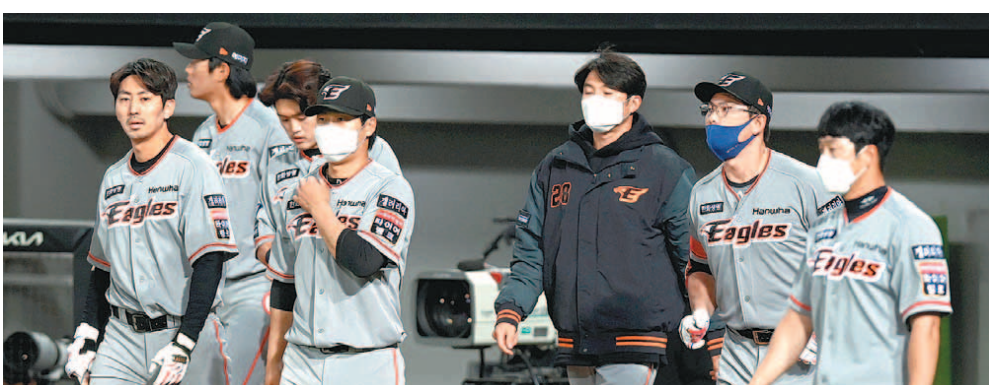
한화의 5월 성적은 13경기에서 5승8패다. 단순히 승패의 마진만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숫자지만, 최근 일주일 6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한 것은 매우 뼈아프다. 무엇보다 시즌 전부터 우려된 전력의 격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비시즌 동안 리빌딩 작업에 착수한 한화는 그야말로 체질 개선에 온 힘을 쏟았다.

젊은 선수들을 전면에 내세운 야수 라인업, 지난해부터 좋은 모습을 보인 투수진의 계속된 활약은 한화의 새 시즌 출발을 가볍게 했다.

그러나 144경기의 대장정 동안 패기만으로 승부할 수는 없다. 정규시즌 개막과 함께 모든 팀은 전력분석에 들어가고,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가장 먼저 충격이 오는 부분은 역시 타자다. 노시환, 정은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시원한 타격과 출루가 나오지 않고 있다.

외국인타자 라이온 힐리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도 한화로선 고민거리다. 시즌 초반 상위권에 포진한 팀에는 대부분 상대 투수진에 커다란 압박을 가하는 외국인타자



한화는 지난주 6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쳤다.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 체제에서 체질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얇은 뎀스의 한계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분위기다. 스포츠동아DB

들이 있다. 삼성 라이온즈 호세 피렐라, NC 다이노스 애런 알테어 등이 좋은 예다. 가뜰이나 전력이 약한 한화로선 힐리까지 제 몫을 못하니 공격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한화는 지난해 중위권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줄곧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는 본

명 달라진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도 남은 경기가 많다. 4월 성적을 선전으로 남길 것이냐,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가는 성적의 출발점으로 남길 것이냐. 모든 것은 전력 격차를 마주한 5월의 한화에 달렸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김인태

정수빈 몸상태 아직 현재 주전은 김인태

두산 김태형 감독 “김인태 타격감 워낙 좋아”



김태형 감독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은 17일 인천 SSG 랜더스전을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설명하면서 외야수 김인태를 언급했다. 김 감독은 “지금 주전은 김인태”라며 그의 최근 경기력에 강한 신뢰를 보였다.

두산은 원래 중견수 정수빈을 필두로 좌우에 김재환과 박건우를 배치해 외야의 공·수 양면을 모두 잡았던 팀이다. 중견수 정수빈은 매 시즌 높은 타율을 올렸던 것은 아니지만, 넓은 수비범위와 뛰어난 작전수행능력으로 김 감독의 중용을 받았다. 정수빈이 올 시즌을 앞두고 6년 56억 원에 이르는 프리에이전트(FA) ‘잭팟’을 터트린 것도 그 때문이다. 이처럼 베테랑 외야수에 대한 두산의 믿음은 확고했다.

그런 정수빈이 현재 주전 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이다. 지난달 16일 잠실 LG 트윈스전에서 주루 플레이를 펼치던 도중 옆구리 통증을 호소했고, 우측 내복사근 손상으로 재활에 들어갔다. 몸 상태가 나아진 정수빈은 13일 1군 엔트리에 복귀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당장 좋은 타격감을 보이지 못했고, 이 자리는 최근 타격감이 좋은 김인태에게 넘어가 있다.

김 감독은 “현재 주전은 김인태다. 타격감이 워낙 좋다. 당분간 계속 선발로 나갈 예정이다. (정)수빈이가 수비는 더 좋지만, 타격 타이밍이 좋지 않아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 |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NC와 3연전, 로테이션 그대로” 평정심 강조한 LG 류지현 감독



류지현 감독

선두 팀에 이어 다펜딩 챔피언까지 만나는 일정, 시즌 초반임을 고려해도 순위싸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6연전이다. 여기에 날씨의 심술로 인해 휴식일까지 사라졌다. 하지만 류지현 LG 트윈스 감독은 평정심을 강조했다.

LG는 당초 14일부터 삼성 라이온즈와 홈 3연전을 치른 뒤 하루 휴식 후 18일부터 NC 다이노스와 홈 3연전을 치르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16일 경기가 우천으로 인해 하루 밀리면서 휴식일 없이 6연전을 치르게 됐다.

첫 단추를 깔끔하게 끼웠다는 점이 긍정 요소다. 선두 삼성과 공동 2위 LG의 맞대결에 관심이 쏠렸는데, LG가 14, 15일 경기를 잡으며 위닝시리즈를 조기에 확보했다. 다펜딩 챔피언 NC와 일정이 다시 홈경기라는 점도 다행이다. NC는 17일 창원에서 KIA 타이거즈를 상대한 뒤 다시 잠실로 이동해야 하는 스케줄이었다. 이날 경기가 우천취소되면서 NC와 LG는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19일 경기가 석가탄신일로 인해 늦경기로 치러질 것을 고려하면 반가울 수밖에 없다. 류 감독은 “원정을 떠나는 입장에서 스케줄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일정이 다행”이라고 밝혔다.

삼성과 일전에서 출발이 좋았지만 무리수를 두진 않는다. NC와 일전에도 기존 로테이션대로 앤드류 수아레스~이상영~정찬원이 등판한다. 류 감독은 “비슷한 입장이 아닐까 싶다. NC와 우리 모두 나쁜 상황 아니냐”며 “시즌 후반이면 굉장히 예민한 매치업이었을 텐데, 지금은 아니다. 현재 상황이면 1~2위 팀과 맞붙어도 페이스를 잃으면 안 된다. 무리수를 두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잠실 | 최익재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